

## 태권도 수련복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디자인 개발

김정희\* · 조효숙<sup>+</sup> · 전현실\*\* · 이현진\*\*\*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sup>+</sup>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강사\*\* ·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강사\*\*\*

### Design Development of the Taekwondo Uniform ; Historical Research

Jung-Hee Kim\* · Hyo-Sook Cho<sup>+</sup> · Hyun-Sil Jeon\*\* · Hyun-Ji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Won University<sup>+</sup>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Instructor, Dept. of Stylist, Yong In Songdam College\*\*\*

(투고일: 2009. 6. 16, 심사(수정)일: 2009. 7. 10, 게재확정일: 2009. 7. 17)

#### ABSTRACT

This study is considered about the *Taekwondo*(跆拳道) uniform classified by period and analyzed the current *Taekwondo* uniform. And founded on this contents, new designs of uniform, that a functional side are considered and can symbolize the identity of *Taekwondo*, are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ime, the *Taekwondo* uniform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Period of putting on our nation's costume'(three *kingdoms*~*Joseon*(朝鮮) times), 'Period of confusion on uniform'(Japan's colonial rule of Korea~the early 1970s), 'Period of the settlement on official uniform'(the late 1970s~the present time). And besides, the shape of our nation's costume in ancient times is succeeded until *Joseon* times and this basic style becomes the outset on the current *Taekwondo* uniform.

The designed uniforms are connoted the notion of the aesthetic appreciation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that is, a symbolic, dignified, moderate appreci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a functional side for *Taekwondo*. And the contents on the presented designs are classified into 'shape, pattern, color'.

First, these designs that are adapted the shape of *Baji*(바지) · *Jeogori*(저고리) · belt, which have symbolized our nation's costume, and the shape of *Baeja*(배자) had used in *Joseon* times, are connoted a 'traditional appreciation with functional side'. Second, these designs, which are adapted the patterns of the active image(a bugbear, flying horse, tiger for embroidered patches, *Taegeuk*(太極)) in a modern style, express a 'symbolic, dignified appreciation'. Third, these designs are well-matched a black and white color with multicolored stripes(*saekddong*, 색동), and its ones are connoted a 'moderate and symbolic appreciation'.

Key words: *Taekwondo* uniform(태권도 수련복), design development(디자인 개발), aesthetic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한국전통복식의 미), nation's peculiar costume(민족고유복식), traditional pattern(전통 무늬), traditional color(전통 색상)

## I. 서론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우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의 하나이고 현재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의 하나로도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태권도 수련복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현행 여러 태권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미가 고려되지 않은 태권도 수련복이 착용되고 있으며, 각 도장의 홍보 수단을 위해 수련복 디자인에 관장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개입됨으로써 한국의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공통 디자인의 태권도 수련복이 착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태권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최근 여러 논문에서 태권도복 디자인이 제시되었으나 전통성의 새로운 해석보다는 원형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대입시킨 단순한 디자인이 계속되었을 뿐이며 아직까지 태권도를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그 정체성을 각인 시키는 역할을 못하였다. 그러므로 복식 디자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국 정체성이 아름답게 표현된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련복 디자인에 앞서, II 단원에서는 태권도의 시기별 변천에 따른 태권도 수련복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고, III 단원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권도 수련복의 형태와 태권도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IV 단원에서는 한국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새로운 이미지의 태권도복을 제안하였는데, 한국 전통복식의 美인 '상징의 미, 품격의 미, 절제의 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격렬한 움직임에 적합한 활동성에 목표를 두고 디자인하였으며 각각 의복형태, 무늬, 색상으로 구분하여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II. 태권도의 시기별 변천에 따른 태권도 수련복의 변화 과정

고대부터 현재까지 태권도는 시기별 변천을 거듭

하였고, 이에 따라 착용된 태권도 수련복의 형태도 시기별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복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기 위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는 '고유복식 착용기', 일제강점기에서 1970년대 초반은 '도복의 혼란기', 197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는 '공식 도복 정착기'로 분류하여 태권도 수련복을 정리하였다.

### 1. 고유복식 착용기 : 삼국시대~조선시대

태권도의 최초의 발생은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수렵을 위해 손과 발을 사용하여 달리고, 뛰어오르는 등의 자연적인 신체활동이 투쟁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sup>2)</sup>

우리 민족 최초의 무예는 수박(手搏)으로, 고문헌에는 '수박, 수벽타, 국선도, 탁견, 수박회' 등으로 다양하게 그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어<sup>3)</sup>,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태권도와 유사한 무예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계보는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고대의 무예인 '수박'이 택견으로 계승되어 민족고유무예인 태권도의 본류(本流)가 되었다.<sup>4)</sup>

이 시기 무예복은 호전적 기질이 강한 기마민족이었던 고대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맞물려 발생한 북방계열의 밀착형 이부식(二部式) 의복형으로, 대(帶)로 여며 입는 전개형(前開型)의 유(襦)와 좁은 폭의 고(袴)로 구성되어 있고, 의복의 가장자리에는 선(纈)이 둘러져 있다.<그림 1><sup>5)</sup> 이후 조선시대, 개화기까지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행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움직임에 편리한 우리나라의 고유 의복양식인 '저고리, 바지'로 이어졌고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과거의 대가 고름으로 변화되었다.<그림 2><sup>6)</sup> 이러한 형태는 현재 태권도복 구성 품목인 '바지, 저고리, 띠'의 시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권도복 색상에 있어서 '백색(白色)'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복인 저고리, 바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색상이 백색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는 도복의 개념이 정립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하여 이전 시기보다는 그 영향 관계가 보다 밀접했을 것이다.



〈그림 1〉 고구려 삼실총 벽화, 상투를 쓴 역사(集安고구려 고분벽화, 1993, 도115)



〈그림 2〉 개화기, 남아의 힘겨루기 장면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1986, p. 157)

## 2. 도복의 혼란기: 일제강점기~197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전통 무예가 탄압을 받고 외양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나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 꾸준히 비전(秘傳)되어 왔다.<sup>7)</sup> 1945년 광복 이후 공수도(空手道)를 공부한 일본 유학생과 중국 무술을 습득한 무술인들을 주축으로 당수도, 궁술, 유도, 검도와 같은 무술이 보급되었으나 각 계파별 산발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상·하 위계적 등급 체계와 근대적 무술 조직인 다양한 관(館)들이 형성되었다. 즉 1944년 이원국이 이끄는 청도관, 1945년 황기가 이끄는 무덕관, 1946 전상섭이 이끄는 연무관과 윤병인이 이끄는 창무관, 1947년 노병직이 이끄는 개성 송무관, 전쟁 중에는 1952년 최홍희의 오도관 등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 등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계파별로 제도적, 기술적 차이를 보여주었다.<sup>8)</sup> 이와 함께 1955년 정해진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 여러 명칭의 혼용<sup>9)</sup>과 뚜렷한 체계 없는 여러 개의 신흥관의 파생은 전통 무예와 관련된 명칭과 단체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65년 6월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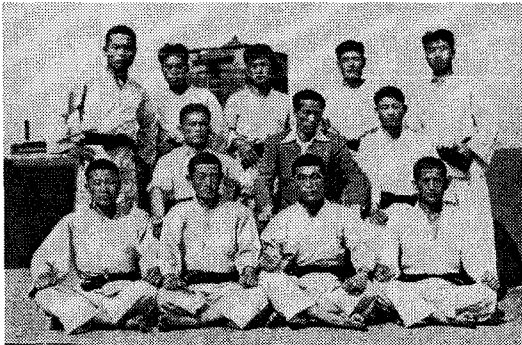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태권도복은 전개형 형식으로, 우리나라 고유복식, 즉 직령교입식(直領交

襟式) 유(襦)와 고(袴)의 착용에, 허리에는 대(帶)를 두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당시 활동했던 여러 계파 중 대표적인 무덕관 관원 도복의 연대별 변천 모습을 살펴보면, 1950년대의 사진자료에는 백색 바탕의 상·하의에 선이 둘러있지 않고, 흑색 띠만 둘러었다. 〈그림 3〉<sup>11)</sup>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 깃과 수구에 굵은 선을 둘러었으며 선의 색상도 두 종류가 보인다. 〈그림 4, 5〉 이는 깃의 색상에 따라 등급 구분을 한 것으로, 현재의 띠에 따른 구분과 동일한 기능이라 생각된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는 전개형에 짧은 옆트임이 있는 도복이 나타났으며, 띠와 옆트임 및 도련에만 이색(異色) 선을 둘러었다. 〈그림 6〉<sup>12)</sup>

또한 당시 도복 생산업체가 전문화되지 못했고, 태권도복의 규격과 모양이 통일되지 못해 각 도장의 사범이나 관장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도복을 제작하였다. 그 구성은 전개형의 형식에 상의 흑색과 하의 백색 또는 상의 백색과 하의 흑색의 도복 외의 상의를 누빈 도복도 등장하였으며, 경기 시에 착용된 도복도 규정에 의해 정해진 공통된 형태가 아니었다.<sup>13)</sup>

## 3. 공식 도복 정착기: 1970년대 후반~현재

이 기간의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



〈그림 3〉 1957년 무덕관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2002, p. 52)



〈그림 4〉 1960년 무덕관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2002, p. 57)



〈그림 5〉 1966년 무덕관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2002, p. 68)



〈그림 6〉 1970년대 초반 추정, 최홍희가 국제사범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장면(태권도교서, 1972,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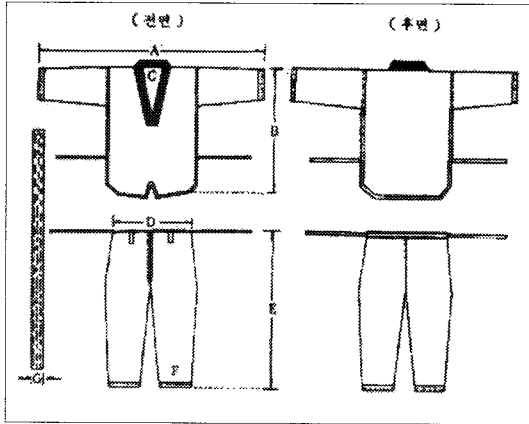
잡아가면서 실전 무술적 성향이 강해졌다. 조직에서 근대 태권도와 유사한 국제태권도연맹(ITF, 1966년 3월 창설)과 스포츠 경기 위주로 무술의 기능이 다소 약한 세계태권도연맹(WTF, 1973년 5월 창설)으로 이분화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도복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 1) 세계태권도연맹(WTF) 제정 태권도 수련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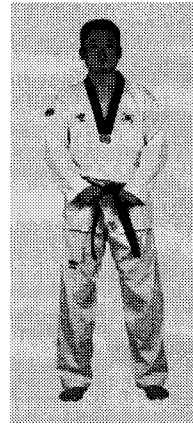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태권도의 경기 복장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WTF)에서 제정(1978년 7월)된 규칙 제4조 2항의 내용으로, 색상은 상하 백색이며, 형태는 앞이 막힌 V자형의 네크라인으로 상의 중앙 하단에는 ㅈ자 모양으로 터져있고, 겨드랑이 밑은 트여있고, 기의 색상에서 유단자는 흑색, 유평자

는 반흑·반적색으로 정해져 있다<sup>14)</sup>.〈그림 7, 8〉이처럼 현재의 공인 태권도복은 상의가 앞이 막히고 V형 기에 머리를 넣어 입는 형태로, 기존의 전개형 상의가 태권도 경기 중 발생하는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여밈이 풀어지기 쉽기 때문에, 원활한 동작을 위해 고려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띠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다섯 색상으로 구분되어 초보자는 흰색, 유급자는 노랑·파랑·빨강, 유단자는 검정색을 사용하도록 정하였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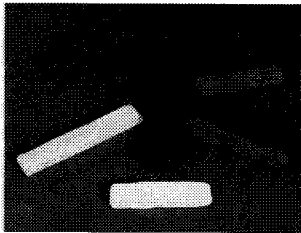
최근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경기복의 실용적인 면을 보강하기 위해 생활한복 브랜드인 돌실나이와 함께 새로운 태권도 경기복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 경기복은 사신도(주작, 현무, 청룡, 백호)와 오방색을 모티브로 하였고, (주) 디자인 로커스와 함께 엠블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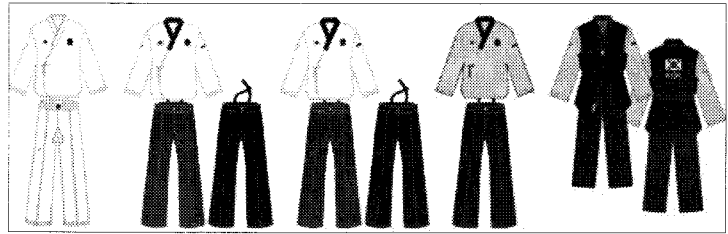
<그림 7> 세계태권도연맹(WTF) 제정 태권도복 (한국적 이미지의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 2005, p. 53)



<그림 8> 태권도복 착장 자세(태권도, 2006, p. 80)



<그림 9> 오색 띠 (태권도, 2006, p. 61)



<그림 10> 돌실나이 제안 태권도복 디자인 (http://www.han-brand.com/index.jsp)

(문장)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하여 제시하기도 했다.<sup>15)</sup> <그림 10> 이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07년 5월 상용화 방안이 통과되었고, 2007년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단에게 입혀졌다.

## 2) 국제태권도연맹(ITF) 공식 도복

국제태권도연맹에서는 유급자, 유단자, 사범(지도자) 도복으로 나누어 착용되고 있는데, 도복 색상은 모두 흰색으로, 유급자는 띠의 색상으로 급수를 구분하고 있고, 유단자는 상의 도련에 검정색 선을 들렸고, 사범은 4단부터 상의 화장, 하의 옆선에 검정색 선을 추가(그림 11)하여 구분하고 있다. 형태는 앞 중심에서 여밈 입을 전개교입형 상의로, 여밈 안쪽은 가슴 중심선 정도 위치에서 명치 5cm 위 정도까지 올려 여밈 수 있는 지퍼를 달아(남미 지역에서는 벨

크로(velcro)를 달기도 함) 동작 기능성을 고려하였다.<sup>16)</sup> 이는 도복의 혼란기(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의 도복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세계태권도연맹 제정 태권도 수련복보다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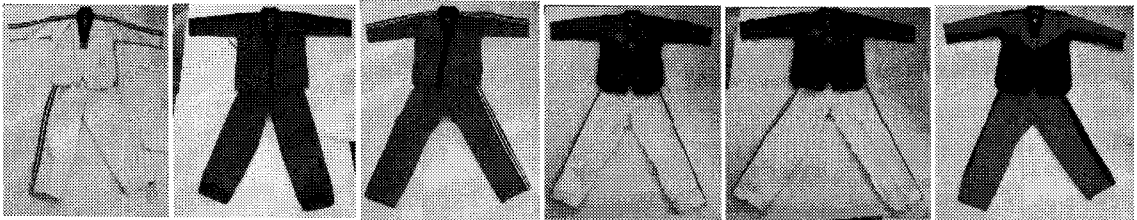
## Ⅲ. 현행 태권도 수련복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행 태권도 수련복의 디자인, 문양 및 색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공한 7벌의 태권도 수련복과 수련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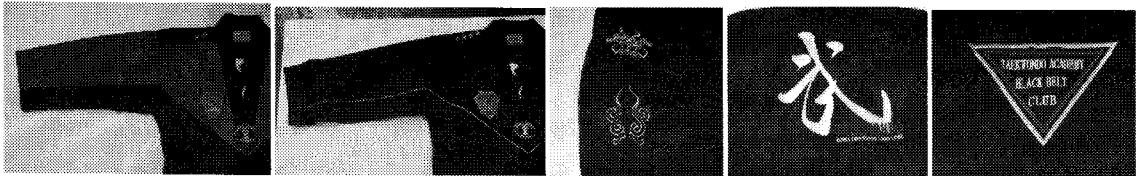
조사한 수련복들의 여밈 방식은 V형 깃에 앞이 막혀있는 형태와 앞이 트여 허리에서 끈으로 여밈는 형태의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그림 11〉 국제태권도연맹(ITF) 제정 태권도복(www.kitf.org)



〈그림 12〉 태권도 협회 제공 현행 태권도 수련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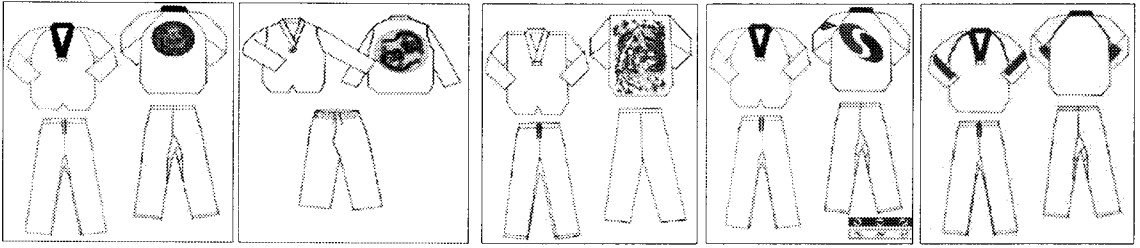
〈그림 13〉 현행 태권도 수련복 부분 장식

중 앞이 막혀있는 수련복은 흑색 깃, 약간의 옆트임, 앞 중심 도련에는 ^자 모양으로 터져있는 형태로 1978년 세계태권도연맹 지정 공인 도복과 유사하고, 앞이 트인 형태의 수련복은 공식 도복이 등장하기 전에 착용되었던 디자인과 유사한데, 안쪽과 바깥쪽에 여밀 수 있는 끈이 부착되어 있다. 색상은 백색, 흑색, 적색, 청색이 단독으로 사용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두 색상이 혼용되었다.〈그림 12〉 또한 각 수련의 세부 장식을 보면, 어깨에는 도장에 따라 굵은 흑색 선이나 3줄무늬 및 별무늬 또는 구름무늬를 사용하고 있고, 가슴이나 등에는 각 도장을 상징하는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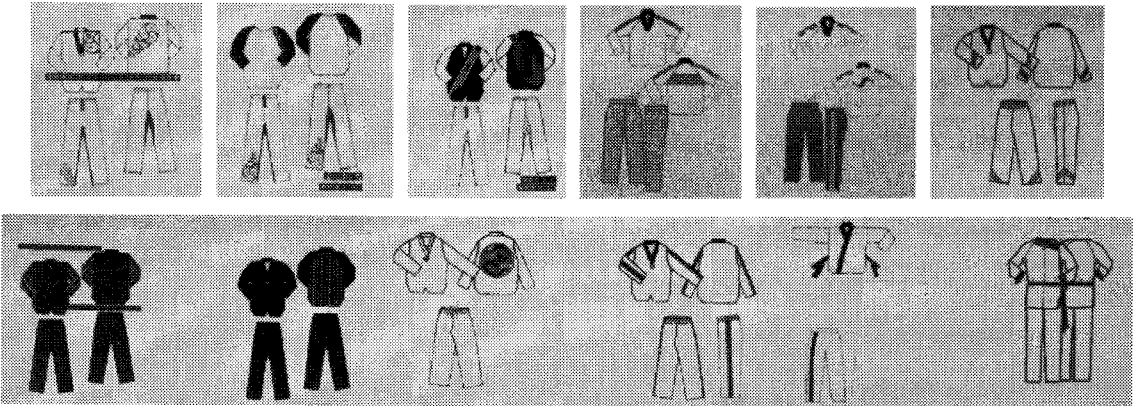
나 글자(한자, 영문)를 장식하고 있다.〈그림 13〉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현재 일반 도장을 중심으로 착용되고 있는 수련복들은 디자인에 있어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전통미와 세련미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태권도 수련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현행 태권도 수련복 분석 및 디자인 개발, 기능성 향상을 위한 소재와 패턴 개발 및 치수 체계 분석, 수련복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용·봉황·태극



〈그림 14〉 용·봉황·태극·사괘·단청을 활용한 디자인  
(스포츠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2004, pp. 32-33)



〈그림 15〉 용·봉황·태극·사괘·단청·색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한국적 이미지의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 2005, pp. 80-89)

·사괘·단청을 활용하여 디자인과 무늬를 제안한 연구<sup>17)</sup>〈그림 14〉와 한국복식·건축·국기에 나타난 전통 문양인 용·봉황·태극·사괘·단청·색등으로 모티브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복 및 띠 디자인을 제시한 연구<sup>18)</sup>〈그림 15)<sup>19)</sup>가 있는데, 두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디자인 형태는 모두 기본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F) 제정 태권도 수련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이승훈<sup>20)</sup>은 설문조사 등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이미지 도복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개량 방안, 전통문양 및 전각을 통한 개량 방안, 유품자와 유단자의 세분화에 따른 개량 방안, 태권도 수련생이나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사·반영한 개량 방안,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색채 의미와 생능감의 변화를 통한 개량 방안, 기능성 향상

을 통한 개량 방안,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개량 방안, 일반인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디자이너들이 태권도 패션쇼 개최를 통한 개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승학, 홍승달, 신동윤<sup>21)</sup>은 관련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 태권도복의 디자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즉 관두의형은 전통 복식에 위배된 것으로 전개형 도복을 착용할 것, 깃·도련·수구·바지 단에 선을 두를 것, 품급을 구분하기 위해 선 장식의 색상에 차이를 두거나 띠를 통한 품급 구분을 보다 세분화 시킬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 제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김숙진<sup>22)</sup>은 태권도복의 기능적인 면(신체적

합성, 운동기능성, 쾌적성)의 개선 방안을 위해 소재와 패턴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고, 전영민, 박정희, 최정화<sup>23)</sup>는 설문조사를 통해 태권도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판되는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물성 평가, 주관적인 감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성능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상적인 태권도복용 소재에 대한 제안하였다. 그 밖에 이경화, 김혜수<sup>24)</sup>는 현행 도복을 제작, 판매하는 총 1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치수 체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별에 따른 치수체계의 제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 수련복의 디자인 분석 및 개발 연구는 물론, 수련복에 대한 다각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현 시점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IV. 새로운 이미지의 태권도복 제안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복식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의 우수성이 왜곡·평가절하 되었고, 이는 1960년대까지 전통문화의 계승보다는 외래문화의 무비판적 수용과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1970년대가 되면서 다시 한국의 미,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멋을 주제로 한 복식 디자인에 관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태권도복의 디자인에서는 아직 전통성의 새로운 해석보다는 복고적 소재에 원형주의적 논리를 대입시킨 단순한 디자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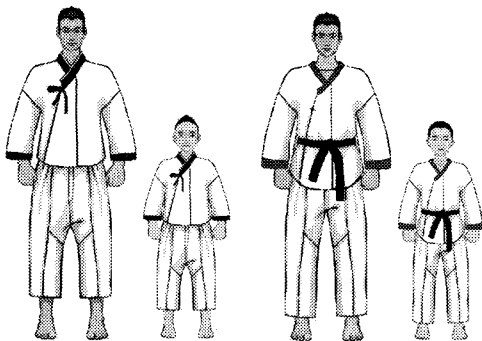
를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그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은 하였으나 21세기에 각국의 전통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에 걸 맞는 활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태권도복은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을 제안함에 있어 한복의 미적 특징 중에 '상징의 미, 품격의 미, 절제의 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격렬한 움직임에 적합한 기능성에 목표를 두고 디자인 하였으며 각각 의복형태, 무늬, 색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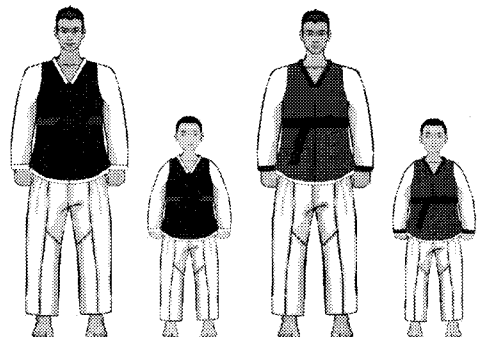
##### 1. 의복 형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복식인 바지·저고리·배자의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기능성을 고려한 품격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16, 17>

여밌은 전개형과 앞이 막혀있는 형태 모두를 채택하였다. 셔선을 살린 전개형 상의에서는 깃 길이를 줄이고 깃 끝의 짧은 고름을 부착하거나 안쪽에 단추를 달아 여몄다. 앞이 막혀있는 형태는 겉에서 보기에는 여밌형 같이 보이나 여밌을 봉제하여 고정시키고 목선 부분에 트임을 주었으며 상의 길이를 길게 하고 허리에 띠를 둘렀다. 두 종류 모두 깃과 수구에 이색 선을 둘렀다. 또한 조선시대 배자를 응용한 수련복 디자인은 상의의 길 부분을 배자 디자인을 적용하여 소매와 길을 다른 색으로 하여 배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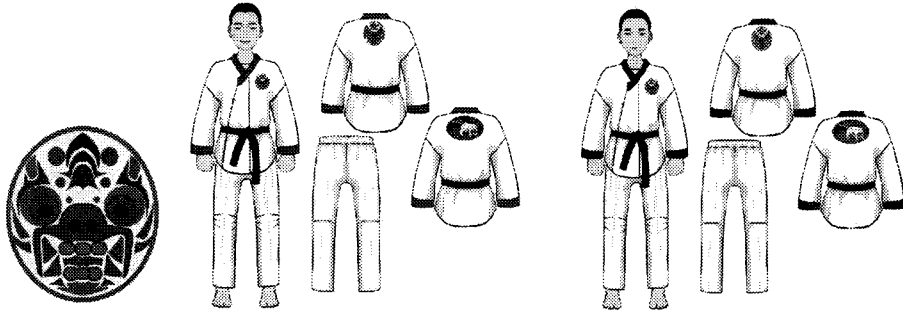


<그림 16> 고유 복식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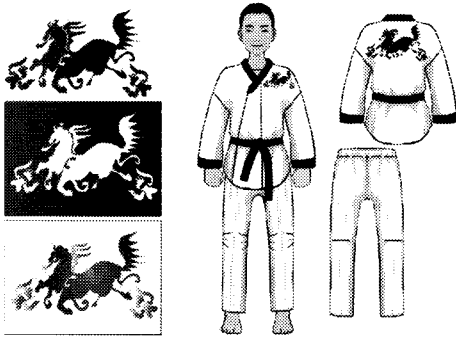


<그림 17> 배자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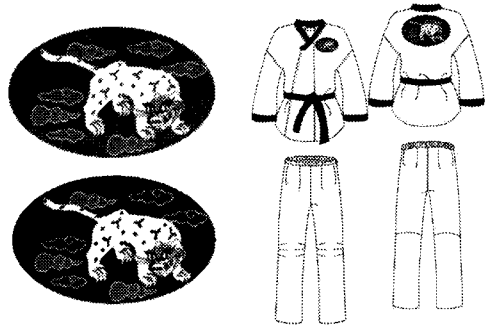




〈그림 18〉 귀면문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그림 19〉 천마도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그림 20〉 호표홍배문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입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였으며 V형 맞깃에 허리에는 띠를 두른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깃 색상은 두여밈 방식 모두 황·적·청색을 사용하여 품급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동작 기능성을 고려하여 소매산을 낮추었고, 하의 무릎을 중심으로 다투트 형식의 절개선을 넣거나 바지 안쪽에 절개를 두었고, 품에 보다 여유를 주어 활동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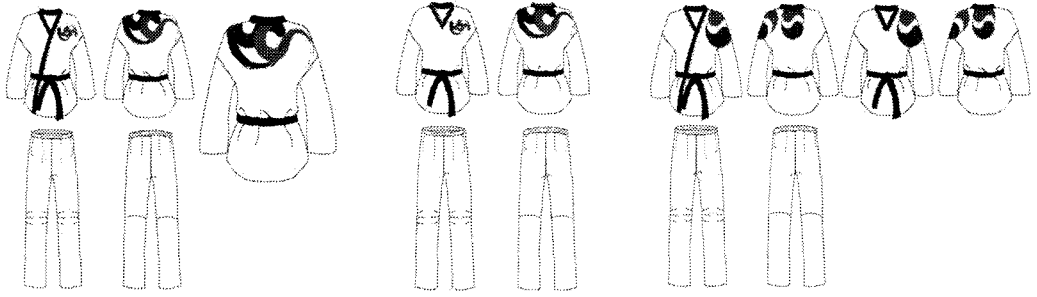
## 2. 무늬

무늬는 심미적인 장식의 기능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여러 형태로 발전·계승되어 왔고, 당대인들의 미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수련복과 같은 복식에도 무늬를 추가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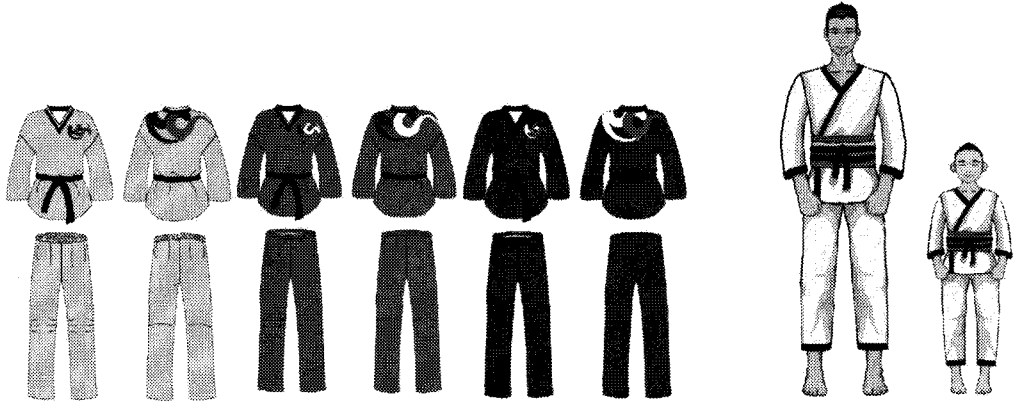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무늬 자체로 한층 심오한 상징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sup>25)</sup>

제시한 무늬 디자인은 한국 전통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태권도 경기를 통해 발산되는 힘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한복에서 느낄 수 있는 '상징미'와 '품격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술이나 벽사의 의미가 담겨 악귀를 막아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귀면문, 말을 타고 달리는 우리 민족의 용맹함과 진취적인 기개가 반영된 천마도, 조선시대 무관(武官)의 관복에 패용함으로서 무신으로의 용맹함을 상징<sup>26)</sup>하는 호랑이와 호표 홍배 무늬를 모티브로 하여 단순화시켰다.〈그림 18, 19, 20〉

또한 태극무늬도 디자인 모티브로 이용하였는데, 태극은 한민족의 우주관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과 친근하면서도 경외감을 일으키는 무늬이기 때문이다.<sup>27)</sup>



〈그림 21〉 태극 무늬 응용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그림 22〉 수련복 색상에 따른 품급 구분

〈그림 23〉 색동 띠를 허리에 두른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극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상징화한 디자인들을 제시했다.〈그림 21〉 기존 수련복들이 띠의 색상으로 품급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허리의 띠를 흑색으로 통일하고 수련복 상·하의의 색상에 따라 품급을 구분하도록 하였다.〈그림 22〉

### 3. 색상

색은 선(線)이나 형(形)과 더불어 미적 가치의 필수적 요소이며 인간은 색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고,<sup>28)</sup> 복식의 형태와 함께 그 형상을 구체화하며, 의복에 인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착용자가 속한 집단의 공동체 경험으로 발전하여 특정한 색채에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공통의 상징성을 갖기도 한다.<sup>29)</sup> 우

리나라도 상고시대부터 주변 환경과 맞물려 다양한 색상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면서, 당대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을 반영해 왔다.

백색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부터 서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의복 색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상징색으로 알려져 있다. 백색과 함께 흑색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의 흑립(黑笠)과 포(袍)나 유학자의 유건(儒巾)과 심의(深衣)에서 '절제의 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색동은 조선 복식의 주조색인 백색에 대해 과격적인 색조화로 부각되어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고<sup>30)</sup>, 또한 우주관적인 철학사상 등이 반영되어, 벽사와 주술의 의미<sup>31)</sup>로 어린이 옷에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주머니, 포장지 등의 문화 상품에 우리나라 전통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

제가 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련복 디자인에서는 깃, 수구, 도련에 흑색의 선을 둘러 수련복의 백색과 적절히 조화시켜 '절제의 미'를 표현하였고, 허리에는 색등을 응용한 띠를 제시하여 '절제미' '상징미'를 나타내었다.(그림 23)

## V. 요약 및 제안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복의 시기별 변화를 고찰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권도 수련복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기본적으로 기능성이 고려되고, 미적 측면에서도 태권도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태권도 수련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태권도의 시기별 변천에 따라 착용된 태권도 수련복을 삼국시대~조선시대는 '고유복식 착용기', 일제강점기~1970년대 초반은 '도복의 혼란기', 1970년대 후반~현재는 '공식 도복 정착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태권도 수련복은 고대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맞물려 발생한 북방계열의 밀착형 이부식 의복형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도 계승되었고, 그 기본적인 구조가 현재 태권도복 구성 품목인 '바지, 저고리, 띠'의 시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이어온 태권도복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태권도의 활동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 전통복식의 미(美)인 '상징의 미, 품격의 미, 절제의 미'의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이미지의 태권도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시한 디자인들은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무늬, 색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바지·저고리의 형태와 조선시대 배자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태권도의 활동성을 고려한 품격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통 무늬를 차용한 디자인으로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태권도 경기를 통해 발산되는 역동적 이미지가 반영된 무늬인 귀면문, 천마도, 호표홍배 무늬 및 태극무늬를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다양하게 디자인 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이미지인 상징의 미와

품격의 미를 표현하였다.

셋째, 전통 색상을 차용한 디자인으로 절제의 미를 상징하는 백색과 흑색, 상징의 미를 의미하는 색등을 활용하였다. 백색과 함께 흑색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의복 색상으로 이용되어 왔고, 색등은 예로부터 벽사와 주술의 의미로 즐겨 사용된 우리민족의 상징색이다. 본 연구에서는 흑백의 색과 색등을 잘 조화하여 백색의 수련복에 깃에는 흑색 선을 두르고 허리에는 색등을 응용한 띠로 묶는 디자인을 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이미지인 절제의 미와 상징의 미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의 개발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수련동기를 제공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품위와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수련복을 착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후 대한태권도협회와의 접촉을 통해 본 연구에서 디자인된 수련복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태권도의 활동성을 상징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미가 표현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기능적인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후 연구의 제안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윤상화, 권관배 (1998), 태권도 수련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龍人大學校 論文集, 第16輯, p. 164.
- 2) 정현정 (2005), 한국적 이미지의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5.  
국기원 홈페이지 자료(<http://www.kukkiwon.or.kr/information>), 자료검색일 2008. 12. 2.
- 3) 이경명 (2006), 태권도. 대원사, p. 9.
- 4) 이종우 엮음 (1972), 태권도교본. 대한태권도협회, p. 19.
- 5) 김기흥, 김동규 (2005), 태권도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13(2), p. 92.
- 6) 이경명, 앞의 책, p. 15.
- 7) 김동준 (2004), 태권도의 현대사에 따른 태권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p. 1272.
- 5) 조선일보사 (1993),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 6) 趙繼衍 해설 (1986),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서문당.
- 7) 윤상화, 권관배, 앞의 논문, p. 165.
- 8) 임일혁 (2004), 태권도 미학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6.
- 9) 정용익 (2003), 현대 태권도사 정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 문학작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
- 10)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異見이 있다.
    - ① 전통적 기원설 · 가라테 유입설 · 전통무도와 가라테 융합설 - 김기홍, 김동규, 앞의 논문.
    - ② 현대 태권도가 고대로부터 전래된 무예로 보면서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태권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화된 형태로 주장하는 '전통주의' 입장과 전통주의적 태권도 사관이 사실성이 부족하고 역사적 의미가 없으며, 태권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가라테를 배웠던 초기 사범들에 의해 광복 후에 발전된 무예로 보는 '수정주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 양진방 (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옥 (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 최영렬, 전정우 (1997), 태권도 사관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체육과학논총*, 10.
      - 이창후 (2003),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상아기획.
      - 김방출 (2006), 태권도사 논쟁에 대한 쟁점과 과제, *체육과학연구*, 17(1).
    - ③ 국제태권도연맹(ITF)에서는 창설자인 최홍희가 원래 가라테를 연마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무예로서 태권도를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 조직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영덕(국제태권도연맹 서울시협회 전무이사), 2009년 6월 10일 인터뷰 내용.
  - 11) 姜信哲 (2002),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자연과 사람.
  - 12) 崔泓熙 (1972), *태권도교서*, 精研社.
  - 13) 윤상화, 권관배, 앞의 논문, p. 165, p. 167.
  - 14) 金淑眞 (1987), *태권도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6.
  - 15) Fashionbiz 2006년 9월 12일자 기사 내용, 자료검색일 2009. 4. 17.
  - 16)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서울시협회 담당자 인터뷰 내용(2009년 3월 6일, 6월 10일)
  - 17) 최정화, 김민, 김민자, 전태원 (2004), *스포츠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축구복, 태권도복, 수영복, 골프웨어, 에어로빅복, 락복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재단, pp. 31-34.
  - 18) 정현정 (2005), *한국적 이미지의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3-46, pp. 50-52, p. 64, pp. 67-89.
  - 19) 이 연구에서는 총 48개의 수련복 디자인을 제시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12개만 예로 제시하였다.
  - 20) 이승훈 (2006), *한국적 이미지의 공인 태권도복 개량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7(2), pp. 772-776.
  - 21) 이송하, 홍승달, 신동윤 (2004), *태권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태권도복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pp. 873-875.
  - 22) 김숙진 (1987), *태권도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전영민, 박정희, 최정화 (2003), *태권도복 소재의 성능 및 착용감의 개선을 위한 연구*, *복식*, 27(1), pp. 134-142.
  - 24) 이경화, 김혜수 (2007), *태권도복의 표준치수체계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1(11), pp. 1530-1541.
  - 25) 琴基淑 (1994),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p. 92.
  - 26)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김집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 130.
  - 27) 박일재 (2000), *전통문양이 포장디자인 개발에 미치는 연구-농수산물 포장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5, p. 92.
  - 권미오 (2002), *傳統紋樣을 응용한 文化商品의 開發과 弘報의 展開*, *출판잡지연구*, 10(1), p. 168.
  - 28) 朴恩英 (2004), *한국 전통 美意識을 적용한 웹사이트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2.
  - 29) 琴基淑, 앞의 책, p. 57.
  - 30) 한국산업디자인협회, 앞의 논문, p. 367.
  - 31) 朴恩英, 앞의 논문, p. 25. ; 금기숙, 앞의 책, p. 80.
  - 32) 이미재 (1997), *현대 디자인에 접목시킨 한국전통문양*, *清藝論叢*, 13, pp. 91-92.